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7년도 표어 ◎

"화평케 하시는 그리스도"(엡2:4)

◎ 생활지침 ◎

- 1.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자
- 2.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누자
- 3. 성령이 주시는 화평의 열매를 맺자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97 김치신학세미나 프로그램 확정

올해 개최되는 제 8차 김치(KIMCHI)신학세미나의 프로그램이 확정됐다. <표>

5월20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진행되는 이번 김치세미나는 네 팔·몽골·캄보디아·베트남 등 아시아 4개국에서 교계 지도자 30명이 참여한다.

세미나는 매일새벽 새벽기도회를 시작으로 오전에 강의와 토론 시간을 갖고 오후에는 기독교 기관과 교회를 돌며 한국 사회와 교회의 모습을 참관하게 된다.

특히 세미나 기간 중에는 전교인이 참가하는 '아시아를 위한 특별새벽기도회'를 개최한다. 한국 교회 부흥의 견인차로 자부하는 새벽기도회 시간은 해외 많은

참가자들이 가장 신선한 충격을 받았노라고 고백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실제로 많은 지도자들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 새벽기도회를 시작하여 열매를 맺고 있다고 보고해오고 있다.

또 오후에는 시내 관광, 교회와 신학교·기독교학교 방문 등 한국과 한국교회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토요일인 29일 오후엔 산상기도에 참여하며 주일인 30일엔 간증시간이 마련되어 있다.

특히 저녁시간은 다락방 참관, 가정초청만찬을 통해 성도들과 가정에서 교제를 나누고 27일(화)에는 교계지도자들을 초청하여 만찬을 갖는다.

이 세미나의 원활한 진행을 위

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성도들의 참여와 봉사다. 영접·안내, 식당봉사 등 각 분야에서 성도들의 기도와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봉사로 아름답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김치신학세미나는 현지의 영향력 있는 지도자를 초청하여 영적재충전과 재교육의 기회를 갖게 함으로써 자국복음화에 기여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타문화권에 선교사를 파견하는 일과 함께 현지 지도자 재교육은 세계복음화의 효과적인 선교 전략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치신학세미나 진행을 위한 제반 경비는 교회의 예산이 아닌 특별헌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타교회 성도들도 적극 후원해오고 있다.



지난 주 부활절 예배에서 거행된 성찬식
성도들은 떡과 포도즙을 나누며 부활의 주
님을 오실 때까지 증거할 것을 다짐했다.

제 8차 김치 신학세미나 프로그램

	5. 19.(MON)	5. 20.(TUE)	5. 21.(WED)	5. 22.(THU)	5. 23.(FRI)	5. 24.(SAT)	5. 25.(SUN)	5. 26.(MON)	5. 27.(TUE)	5. 28.(WED)	
5:30	도착 Arrival	아시아를 위한 새벽기도회 Pre - dawn Prayer Meeting for Asian									
6:00		개인경건의 시간 Private Quiet Time									
7:00		아침식사 Breakfast									
8:30		자유시간 Free time									
10:00		개회예배 Opening Worship	자유시간 Free time								
		강의 I Lecture I	강의 II Lecture II	강의 III Lecture III	강의 IV Lecture IV	강의 V Lecture V	교회학교 참관 Sunday School	강의 VI Lecture VI	강의 VII Lecture VII	강의 VIII Lecture VIII	
10:50		휴식 Intermission									
11:10		토의 Discussion	토의 Discussion	토의 Discussion	토의 Discussion	토의 Discussion	주일 예배 Worship Service	토의 Discussion	토의 Discussion	토의 Discussion	
12:00		점심식사 Lunch									
13:00		시내 관광 City Tour	교회 방문 Visit Church	기독교대학 방문 Visit Christian Univ.	자유시간 Free	산상기도 Mountain Prayer	간증 Testimony 찬양예배 Evening Worship	목회자세미나 참관 Visit Pastoral Seminar	신학교 방문 Visit Theological Seminary	강의 IX Lecture IX	
15:00	등록 Registration	환영만찬 Welcome Dinner									
18:00		국가별 모임 Nat'l Meeting	자유시간 Free Time	다락방 참관 Upper RM Study	자유시간 Free Time	묵상 Meditation	가정초청 만찬 Home Dinner	교계지도자 초청만찬 Dinner with Ch. Leaders	저녁식사 Dinner		
19:00		폐회예배 Closing Worship									
20:30		그룹기도 Group Prayer									
21:00		그룹기도 Group Prayer									

* 5. 29.(THU) - 참석자 출국 Departure

창세기
강해



“시므온과 레위: 악한 형제들”

(창세기 49장 5~7절)

이종운 목사

형제는 서로 격려하고 돕고 고통을 나누는 사이입니다. 그러나 시므온과 레위는 악한 형제였습니다.

1. 폭력과 배반의 시므온과 레위

야곱의 열 두 아들 가운데 시므온과 레위는 둘째와 셋째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이들은 르우벤과 함께 레아의 소생입니다. 이들은 악한 편에 섰고 폭력을 휘두르고 배신을 한 인물들입니다. 야곱은 그들을 혈기의 사람, 잔인한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맏아들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 빌하를 범한 죄가 있었지만 시므온과 레위는 폭력을 휘두르고 살생을 하는 무서운 죄를 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창세기 34장을 보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세겟성에 이르렀을 때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의 청년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 디나의 오빠들, 곧 야곱의 아들들은 몹시 화를 내며 세겟성 사람들을 모조리 죽여 버렸습니다. 사실 세겟 사람들은 세겟 청년이 디나와 결혼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두 족속이 평화롭게 살기를 제안했던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 받지 않은 족속과 결혼 관계를 맺을 수 없으니 할례를 받으라고 제안을 하고서 실제로 그들이 할례를 받고 꿈쩍도 못하고 있는 동안 세겟성을 기습하여 그들을 죽여 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기의 목적을 이룬 것은 계약에 대한 배신 행위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처음부터 디나를 세겟 사람에게 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단지 세겟 사람들을 죽이기 위하여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야곱은 아들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목숨조차도 위태로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음에 직면해서는 아들의 이름을 하나 하나 부르며 예언을 하는 가운데 당시의 장본인인 시므온과 레위의 이름을 부르며 “너희는 잔해하는 타작기계며 배신자”라고 저주를 했습니다(7절).

야곱이 아들들로 인하여 얼마나 고통스러워 했는지 6절을 보면 자기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자기의 혼을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그들의 모의와 집회와 아무 상관

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자식과 상관 없다고 절연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서운 저주입니다.

야곱은 축복의 자녀를 낳고 마지막에 가서는 저주를 하며 죽어야 하는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키우지 못하면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악한 것은 마땅히 악하다고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지 못하면 나중에 큰 화를 면치 못하게 됩니다.

2. 그들을 이스라엘에서 홀으리라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야곱의 예언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그들의 죄에 대한 탄핵이고, 둘째는 그같은 배신의 행위가 다시는 없기를 바라는 뜻에서 야곱은 자기 영혼에게 그들 모의에 상관도 말고,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도 말라고 하며, 셋째는 그들에 대한 심판, 즉 그들의 분노를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소유한 땅이 없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살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렇게 애타게 기도하던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의 분깃을 나누는데 시므온과 레위 지파의 분깃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쪽은 유다 족속에게 주었는데 유다 족속에게 너무 많이 주었다고 하여 이것 중에서 일부를 떼어 시므온에게 주는데 한 부분이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서 주었습니다(수 19:1-9). 시므온 족속은 야곱의 예언처럼 여기저기 흩어져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도 흩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레위 지파는 제사장이 되는 대신 땅의 분배는 없었으므로 그들 역시 온 땅에 흩어져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대하 23장 2-5절을 보면 그들은 48개의 성에 흩어져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3. 축복으로 바뀐 저주

야곱의 예언, 곧 시므온과 레위 자손이 흩어질 것이라는 말은 심판입니다. 이 말처럼 시므온과 레위는 자기 땅을 소유하지 못하는 족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은혜로우신 하나

님은 그들이 심판을 받은 후 다시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레위의 후손은 제사장이 되어 48개 성에 흩어져 살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을 지도하는 큰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들에게 땅의 분깃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분깃이 되신 것입니다.

또 그들의 후손 중에는 위대한 인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 다른 어떤 지파 보다도 많은 왕을 배출하였고 모세, 아론,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 에스라, 세례요한이 그들입니다. 이처럼 레위 지파는 저주가 변하여 축복을 받은 족속입니다.

시므온 지파도 번영과 은혜를 누렸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과 그 심판을 축복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시 은혜로 채우십니다.

✦ 순례자 컬럼 ✦

“편견의 위기”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자기대로의 경험을 갖고 있었다. 병도 고치고 전도도 했으며 기사와 이적도 행하였다.

대개 성공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 인간은 독선과 아집에 사로잡혀 편견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편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철저히 상대화시켜야 한다. 절대적 존재가 아님을 인식하는 자만이 자기 상대화는 가능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무지나 교만에서 벗어나야 편견의 위기에서 피할 수도 있다. 소크라테스의 심판을 이해 못한 히랍인들은 그에게 독배를 들게 했고 예수를 잘못 이해한 사울은 그의 교회를 핍박하는 우를 범했다.

자기 교만의 담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절대 권위를 시인하고 그 앞에서 판단하고 이해할 때에 인간적인 편견은 사라지게 되고 그로부터 오는 모든 오해는 뿌리를 뽑히게 될 것이다.

편견의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자.

▶아담성경공부반에 참가하고서

“말씀으로 여는 목요일 아침”

이관규(집사, 스테반회 회원)

교회 안팎에서 성경공부 그룹들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성도들 중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 특히 남자 성도들이 꾸준히 참석해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참 적습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소속 부서에 흠어져 봉사하다가 찬양예배 후에는 또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현실이고 보니 성도간에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때로는 이름이나 직분조차 모르고 지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하게도 올해부터 아담성경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스테반회가 주관하기로 결정되었을 때 스테반회 회원들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성경공부뿐 아니라 이 모임을 통해 첫째, 천국 백성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신앙향상이 있길 바라고 둘째, 한 성령 안에서 힘을 모아 성전을 건축하는 복을 누리는 동시에 목회자 신학세미나와 김치신학세미나 등 각종 행사에 봉사의 질을 높이는 것이요 셋째, 성도들간에

또다른 폭넓은 교제의 장을 만들어 영원히 함께 할 천국시민 생활의 공동체를 이루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고난주간이었던 지난 달 3월 27일 목요일 새벽기도회가 마친 후 첫 강의시간에 남성도뿐 아니라 청강생(?)인 여성도까지 마치 기다렸다는듯이 가득 모였고 목사님은 읊기서를 강해하셨습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 번져 있는 기복신앙과 안주본능 그리고 생명수가 말라버린 말장난의 무력함을 생각하면 그 말씀은 얼마나 불로 연단한 금같은 생명의 말씀이었는지! 아, 고난이란 건디기 괴로운 것. 그러나 그것을 지나면 깨끗한 신앙과 그 후에 갈망하지 않아도 안겨 주시는 온갖 복락의 약속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믿음 없이 물질만 풍요하여 삶에는 어려움 없다고 장담하는 것 또한 또다른 고난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 말씀을 더 많은 성도들과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강의 후에는 스테반회 회원의 부인들이 전

날부터 모여 기도하며 준비한 조찬을 들면서 식탁에서 교제를 나누니 영육이 아울러 든든하고 그날 하루가 얼마나 윤택했었는지 모릅니다.

갓가지 사정으로 매일 새벽기도회에 참석하는 일이 어렵다면 목요일만이라도 꼭 기억하셔서 고품질의 신앙과 삶을 도출해 내는 마당에 함께 참여하시기를 권합니다.

4월 행사 게시판

일자	행사
7일	목회자신학세미나 ③
10일	아담반강좌 ③
13일	고 3기도회
14일	목회자신학세미나 ④
16일	4월 학습·세례식
17일	아담반강좌 ④
21일	목회자신학세미나 ⑤
24일	아담반강좌 ⑤
27일	교사대학 강좌 ④
27일	새가족환영회
28일	목회자신학세미나 ⑥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의 인도하에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 도중 바알스론 맞은편 비하히롯해변(출14:9)

에 섰을 때 뒤에는 추격해 오는 애굽의 군사들이, 앞에는 홍해가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매년 6월에 가지는 홍해작전 기도운동에 참여할 때마다 지금으로부터 46년 전 북녘땅에서 공산군들에게 쫓겨 피난 나을 때의 상황을 회상하곤 합니다. 당시의 상황이 어찌면 그렇게도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과 같은지요.

1951년 1월 4일. 국군과 유엔군이 우리의 수도 서울을 후퇴한 날, 해주에 살던 우리는 그해 1월 중순경까지도 자세한 전황을 모른 채 치안대들의 보호 하에 고향에 그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1월 중순 추운 겨울 어느날 갑자기 공산군들이 쳐들어오는 다급한 상황하에 운동대는 피난길에 나섰습니다. 육로로는 남하하는 길이 끊겨진 지 오랜 상태여서 많은 사람들은 이리저리 쫓겨 다니다가 용수리라는 마을의 바닷가 궁지에 몰리게 되었고 그 상황은 마치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변에서 진퇴양난이었던 것과 매우 흡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적들의 총소리는 점점 가까이 들려오고 포성에 놀란 많은 사람들은 우왕좌왕 난리법석이었습니다.

▶간증 - 홍해작전을 기다리며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던 날”

홍정선(집사, 1교구)

■...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사건을 통해 경험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내 생애 가운데에서도 몸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 홍해작전을 기대 속에 기다리면서 오늘 이 순간도 기도를 통하여 우리 각자 앞에 가로놓인 여러가지 홍해가 시원하게 갈라지는 체험을 모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그처럼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당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구원의 손길을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울부짖는 기도에서 귀를 기울이셨으며(시120:1)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며칠 후 하나님이 보내 주신 구원선(LST)은 바다 멀리에 나타났고 호위함을 대동하고 우리 시야에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수송선의 위용은 초조해하던 난민들을 안도시키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작은 목선들로 호위함을 경유하여 수송선까지 난민들을 실어나르는 일이 반복되었는데 배를 먼저 타려고 아우성치는 광경들은 전쟁을 방불케하는 아수라장이었지만 사지에서 생명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총에 모든 성도들은 감사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자손이 홍해를 건너

후 여호와께 노래한 내용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

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출15:2).

우리는 8주야를 항해한 천신만고 끝에 자유의 땅 남한에 안착하게 되었고 그 후로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생활과도 흡사한 피난 생활도 경험하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부족한 우리로 그와 비슷한 체험을 하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정치, 군사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휴전선의 홍해(장벽)도 불원한 장래에 건너게 하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금년 홍해작전을 기대 속에 기다리면서 오늘 이 순간도 기도를 통하여 각자 앞에 가로놓인 여러가지 홍해가 시원하게 갈라지는 체험을 모두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다”(시136:12~14).

제 8차 김치신학세미나 참가국 (네팔, 몽골, 캄보디아, 베트남) 순례

캄보디아 (Cambodia)

■ 면적 182,000km² (남한의 1.8배)

■ 인구 9,205,000명(95년 현재)

■ 공용어 크메르어

■ 수도 프놈펜

■ 경제 풍부한 농업 잠재력이 있으나 전쟁, 대학살, 정치적 고립, 사회주의 관료제 등으로 땅이 황폐되고 인권이 유린되어 겨우 생계만을 위한 농업으로 줄었다. 주요 경제활동은 미국의 원조와 유엔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 종교 15세기 이후 불교가 이 나라의 국교였다. 크메르루즈는 모든 종교를 뿌리 뽑으려고 하였다. 불교 승려의 90%와 기독교인이 죽임을 당했다. 1978년부터 조금씩 관대해 졌고 1990년 이후부터는 기독교의 공적인 예배를 허용하기는 하나 기독교인을 2등시민으로 취급하고 있다.

불교 87%(공개적으로 믿을 수 있고 부흥하고 있음)

정령숭배 2.7% 회교 2.9% 기독교 0.38%

■ 캄보디아는 지금

① 참혹한 민족말살: 크메르루즈에 의한 참혹한 민족말살이 1975-1978년에 이루어졌으며 뒤이은 내전으로 국민의 인권은 유린되었다. 땅은 지뢰로 뒤덮여 있고 많은 이들이 육체적, 정신적 장애를 입었으며 가정이 파괴되고 수많은 과부와 고아가 생겨났다. 1993년 민주정부로 평화로운 교체에 대한 열망은 계속되는 크메르루즈의 반란으로 위협받았다. 온전한 정치적, 종교적 자유와 평화가 지속되도록 기도하자.

② 수세기 동안 겪은 영적인 암흑기: 도처의 사원, 어떤 사상도 용납하지 않는 강력한 불교, 20년간 전쟁으로 인한 증오가 많은 갈등으로 드러났다. 이 나라를 지배하는 악한 영의 세력이 물러가도록 기도하자.

③ 생존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캄보디아 교회: 난민 수용소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영접했다. 1990년 이후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었고 연약하나마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고 있다. 캄보디아 교회가 정부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진정한 자유를 갖도록, 성숙되고 훈련된 지도자들이 생겨나도록, 영향력 있는 기독교가정이 많아지며 정서적·영적 필요를 채워주는 사역이 잘 이루어져 복음화의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자.

▶길동무

“계시록까지 왔습니다. 창세기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벌써 4월입니다. 새로운 각오와 결심으로 1997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올해도 벌써 4분지 1이나 지나버렸습니다. 계획했던 것, 목표했던 것의 25%를 달성했는지 돌아보아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일년에 적어도 한 번 성경을 읽자는 취지에서 '주간성경공부' 문제지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주간성경공부'에는 그 주간에 읽을 성경의 범위가 제시되고 본문 이해에 도움될 만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올해는 신약부터 출발했는데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달려왔습니다.

올해의 문제는 좀 어려워서 중도에 그만 두신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답을 쓰느라 성경 본문에 집중할 수 없었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의 '주간성경공부'는 예년에 비하면 난이도가 조금 높았고 성경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야만 답할 수 있었던 문제가 몇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간성경공부'는 채점하기 위해, 혹은 개인의 실력을 평가하기 위해 배부되는 시험지가 결코 아닙니다. 답이야 좀 틀리면 어떻습니까? 틀린 것은 채점할 때 문제지에 정정되어 나가는 답을 보고 새로운 지식을 얻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일일 것입니다. 또 '주간성경공부' 문제지 없이도 성경을 많이들 읽으시는 줄 압니다만 다른 성도들과 한주간 동안 같은 본문을 접하면서 동일한 은혜를 받는 것도 참 의미 있는 일 아닐까요?

오늘부터 '주간성경공부'는 구약 창세기부터 시작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으십시오. 지난 3개월간 미처 참여치 못하셨던 성도들, 몇 주 거르다 보니 다시 시작하기 어려웠던 분들, 이제 함께 다시 시작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주간성경공부'를 계속하면 올해 말에는 구약성경을 한 번 정독하게 됩니다.

■ 목회자동정 ■

* 이종윤 목사는 10일(목) 정동교회에서 개최되는 언론인기독교신우회에서 말씀을 증거한다.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춘천기독교방송(HLDC 93.7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K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대전극동방송(HLAD FM 93.3MHz)	『날푸른 초장』	주일 오후 10시 ~ 10시 45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금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제 8차 김치세미나에 참가할 네팔, 몽골, 캄보디아, 베트남 지도자를 위해
2. 제 11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를 위해
3. 아담성경공부반을 위해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